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 국민의힘 비례대표 |

황 경 아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적극 활용 방안”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 방안”

“장애학생 재난안전대책 마련”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문일답)입니다.



황 경 아 의원

●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을 위한 교육행정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경아 의원

제가 장애인단체 때 교육감님이 장애인 행사면 무조건 쫓아다니시고 열정적으로 뛰셨던 그 모습이 지금 생각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육감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매우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적극적인 추진방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그리고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 장애학생 재난안전대책 위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00년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었고 이행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황경아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6%인데 대전교육청은 2.3%입니다.

특히 의무고용률에서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교원의 의무고용률이 3.6%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해 보니까 선발 공고인원보다 장애교사 응시자 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응시를 하더라도 과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 선발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안 됐습니다.

장애인 교사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현실을 타개하는 방안은 초등교원을 양성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게

하는 교육대학교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장애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학생들의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입생 선발 시 교대나 사대에서 보니까 장애학생의 합격 및 등록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지원율이 낮아서 교원에 대한 달성률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황경아 의원

2005년 적용제외 폐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은 무조건 지키게끔 돼 있고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 황경아 의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최근 5년 동안 10억씩 이렇게 부담금을 내다가 경감제외 대상이 풀리면서 내야 될 고용부담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얼마인가 아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실제적으로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고용부담금이 좀 감면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023년, 그전에 납부하던 금액이, 고용부담금 2분의 1 감면특례 기간이 종료되었지요.

그래서 2023년에는 약 23억 8천만 원 납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약 11억 정도 납부하였는데 교육청에 대한 2분의 1 감면특례기간이 종료된 2023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배가 될 정도인 23억 8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황경아 의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고 있나.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는 300억 정도를 고용부담금으로 내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좀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지원율도 낮고 또 여러 가지 선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 그렇다는 부분들을 저도 접하면서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제외 폐지가 2005년도에 됐지 않습니까?

2005년에 돼서 지금까지 쪽 왔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2023년부터 24억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텐데 2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단순히 교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조금 설득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말씀 중이신데 실제로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2020년, 2021년은, 저 통계로 하면 2020년은 10억 2천만 원 냈고요, 2021년에는 10억 1천만 원, 2022년에는 11억 4천만 원을 냈는데 2023년에, 그동안 감면혜택이 2분의 1로 감면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2분의 1 감면특례기간이 종료되었어요.

감면특례기간이 종료된 것이 2023년부터 해당되다 보니까 2023년에 배 정도가 되는 23억 8천만 원을 내게 됐거든요.

● 황경아 의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뒤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해놨거든요, 전면에도 보이지요.

전면에도 보입니다, 교육감님.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황경아 의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교육감님의 그런 말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5년에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국회법에 통과돼서 감면제외 대상이 될 거라고 예측되는 게 2005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장애교원의 지원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너무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러기에는 설득력이 좀 없다, 20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교육청에 해왔나,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듯이 2분의 1 감면특례기간이 종료된 2023년에 23억 8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아마 2024년도 2023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황경아 의원

그러면 계속, 고용부담금의 감면제외가 됐기 때문에 24억씩 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래서 이걸 저희가, 감면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이 교육감회의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그 자료도 제가 봤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감면하는 부분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꾸준히 하신 것으로, 나름 감면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고용부담금 감면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그 측면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장애인 고용촉진법 취지가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본인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추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고용촉진법을 만들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감면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감면을 어떻게든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감면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고용촉진법의 취지를 살려서 어떻게든 고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도 모든 적성과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성과 소질을 길러서, 그 역량을 길러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드리어서 뭐하지만 보통 비장애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냐면 직장을 가졌을 때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합니다.

특히 장애인들, 우리 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길러서 직업을 갖게 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 황경아 의원

교육청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그래도 가장 높은 3.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전시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굉장히 상위권에 잘하고 있다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이잖아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황경아 의원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미달이라는 것에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2023년도 5월 노동부장관이 의무고용률 이러한 부분으로, 부담금만으로는 미래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방법을 제시하고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을 마련했습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장애교원이 지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원 고용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노동부장관이 발표했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의무고용률 부담금만으로는 안 되니 다른 방법을, 기업하고 연계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은 아시다시피 교원 고용률하고 일반행정직 고용률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원의 선발비율도 1.62%에서 6.31%로 상승시켜 왔습니다, 최근 5년간.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에도 금년에 4명을 채용하면 4.25%인데 그것을 채용 예정으로 공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신입생 선발부터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연계고용 감면제도는 장애인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용을 가산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원이 부족하면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감면을 줄여야겠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저희도 현재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그래요?

제가 자료는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 같은 이러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지요, 교육청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 황경아 의원

이것을 하려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충분히 협약을 해서, 도급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게

되면 24억이라는 어마한 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사실상 올 2024년도 1월부터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 24억 부담금을 그냥 낼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는데, 고용연계 방법이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용부담금을 줄이겠다 이런 의지는 갖고 계신지.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청은 연계고용제도에 대한 것을 아주 충분히 활용해서 부담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부담이 해결되어서 지방교육 재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제가 장애인고용공단하고도 다 알아보고 나름 열심히 한번 뛰어봤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해당 장애인시설하고 삼자가 도급계약 협약을 맺어야지만 감면혜택이 된다는 것,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면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우선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 황경아 의원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시 학교 중 미달성 학교가 전체 278개교 중 30개교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미달성 학교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에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우리 대전교육청이 1.99%로 법정 의무구매 비율 1.01%와 우리 조례상의 의무구매 비율 1.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구매금액이 2019년도 20억에서 2023년도는 38억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구매 비율 상향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이 최근 일부 개정되어서 2025년부터는 의무구매 비율이 1%에서 2%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의무구매 비율을 1.5%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교육청에서는 법정 구매율이 1%인데 1.5%로 조례를 바꾸셨더라고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습니다.

● 황경아 의원

거기에다 1.5%인데도 불구하고 1.7%까지 달성하셨더라고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2023년에는 1.99%까지 달성했습니다.

● 황경아 의원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그다음이 우리 대전이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8월 7일부터지요, 해당 법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는데 우리가 1% 했을 적에 교육청 조례로 1.5%로 됐더라고요.

2%로 되면 2.5%로 상향해서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지요, 2% 이상으로 당연히 상향 조정해야 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황경아 의원

저는 올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여하튼 간에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면 대전교육청도 그만큼 더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도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매년 실태조사와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미달 설치 또는 미설치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관리방법은, 각급 학교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매년 1회 추진하여 점검 및 관리 중이면서 의무편의시설 점검항목은 초·중·고, 특수학교 12개 항목이고 유치원은 9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학교에서 하고 점검 후 관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우선은 학교 자체에서 개선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설은 교육청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 편의시설 미달 설치 및 미설치 학교현황은, 대전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은 88.7%이고 전국 평균보다 0.5% 높습니다.

미달설치 또는 미설치 학교는 장애인용 승강기 또 화장실 등 예산이 소요되는 항목은 교육청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전시가 복지수범도시로 매년 1등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를 보면 사실상 60점, 70점이 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시·도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1등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대평가지 절대평가는 아니거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높습니다.

사실 미설치, 미달되어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편의시설 촉진단원과 함께 현장방문을 하면서 담아온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내 편의시설은 장애인 학생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와 우리 아이들이 운동이나 사고로 다쳤을 때도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대부분 학교의 편의시설이 잘된 것은 맞으나 특히 경사로나 화장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편의증진법 제3조에 시설주는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저렇게 적재물이 있어서 휠체어가 돌기에 방해를 받고 점자블록 등 출입구 문이 철재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 못 하는 문도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 받침대는 전무하더라고요.

법이 바뀌면 편의시설도 같이 법에 맞춰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대전시는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경사로가 보통 6도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고, 여기가 체육관인데 체육관에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사로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당일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사실상 경사로가 있었지만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었고, 촉진단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제일 문제가 무엇이나,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했더니 행정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장애 인식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현장의 현주소인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가족, 부모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 저도 교통사고로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다쳐서 김스라든지 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재난 시 대피장소라든지 투표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이 자료에는 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가도 좋게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간이 잘 구성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 장애 학생들은 공간형성이 잘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승강기라든지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늘 유지관리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요,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가족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그런 면에서 더 많이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 황경아 의원

교육감께서 조금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저희도 매년 10월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조사를 하고 있는데.

● 황경아 의원

알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때 학교 담당자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교육과 유지관리.

● 황경아 의원

지금 두 꼭지가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컨설팅도 철저히 하고 모든 면에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시고요.

남은 시간이 짧으므로 제가 두 꼭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 과밀한 학급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에 대한 학생교육 그리고 훈련, 이 부분들 점검을 해보니까 나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 주시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시설학교에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이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보통 교사가 4명의 장애인 학생을 돌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중증장애인 1명을 맨투맨으로 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 이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행안부에서도 장애유형에 따라서 여덟 가지에서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재난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 무용지물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 대상으로 했지만 이 아이들이 백화점이라든지 건물에 나갔을 때 화재라든지 위기상황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거기까지 쫓아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 교사도 부족하고 이 아이들이 이런 건물이라든지 어디 나갔을 때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행동대처요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일단 특수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특수학교에 재난 관련된 체험과 아까 말씀드린 행정실 교사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다목적으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2021년에 공립 특수학교인 대전해든학교를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서남부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학교 내에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경아 의원

서남부 특수학교 추진은 제가 우리 교육청 보고자료에도 봤거든요.

서남부 특수학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특수학교 설치하는 현재 그 과에서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같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보통 학생들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장애학생들은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보면 유치원은 한 학급이 4명이고요, 초등학교·중학교 6명이고 고등학교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황경아 의원

교육감님, 동부교육청 그쪽에 박물관 건물 짓지요?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 황경아 의원

거기에 혹시 장애유형별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것도 말씀하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남부 특수학교 건립은 착실하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이번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모델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서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따로 자료요구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광역시보다 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 시정질문은 의의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예, 의원님께서 오늘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학생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모든 것들과 질문해주신 내용들은 우리 대전 장애학생들 교육정책에 반영해서 장애학생들 특수교육이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교원 부족한 부분에서 연계고용, 꼭 그것은 성과 결과를 제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 면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구매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고려해서 장애인들 복지향상에도 대전교육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 **황경아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드립니다.

● **황경아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날이 있기 때문에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언론도 그렇고 많이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4월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4월뿐만 아니라 2024년도 한 해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사회취약계층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